

2029년 완공 목표로 10조 투자 예상

■ 1월 7일 한국경제 보도 <현대제철, 트럼프에 ‘10조 선물’ ...美에 제철소 짓는다>를 시작으로 현대제철의 미국 공장 건설 계획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미국공장 건설계획을 ‘검토중’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생산지역, 생산기술, 생산물량, 생산강종, 투자비용 및 시점까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미국공장 건설은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사에 계획을 유포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산 거점도 검토하고 있다” 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텍사스,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 여러 주 정부와 접촉을 통해 투자 여건을 타진중입니다. 70억달러(약 10조원)의 총투자비용을 들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봄에 착공하여 2029년경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기아차공장(연 35만대), 앨라배마주 현대차 공장(연 35만대)과 조지아주 서배너 지역에서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 전기차 공장(연 30만~50만대)을 감안하면, 현대제철 미국공장은 연 200~3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건설하고 GM이나 포드 같은 다른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강판을 판매할 가능성도 큼니다. (자동차 1대당 필요 강판 약 1톤으로 추정)

트럼프-정의선 맞닿은 이해관계

■ 트럼프는 US스틸의 일본제철 매각에 반대하며, 세계 혜택과 관세로 미국 철강업의 부흥을 공언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무역 관세, 최종 완성차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미국내 제철소 건설은 트럼프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조용히는 행보로 분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대제철이 해외공장에 ‘씻물’을 생산하는 것은 처음입니

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해외투자를 할 때 부품사와 함께 진출했고, 현대제철은 현대차 공장 인근에 가공센터를 두는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의 계획은 미국 시장에서 ‘씻물부터 완성차’ 까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기존 고로 생산 방식이 탄소 배출로 현지 반발이 예상되는 바, 전기로를 활용한 씻물 생산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는 모든 강종(철강의 종류)이 아니라 차량용 강판에 집중되어 있어 있습니다. 즉, 철강 투자라기보다는 자동차 투자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제철소 해외직접투자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사 동반진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으로 후판, 선재류, 봉형강류 등 냉연강판 외 부문은 당장 직접적인 타격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철강산업 공동화 우려... 노사관계도 변수

■ 그러나 차량용 냉연강판의 경우에는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타격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물량은 이미 수십년 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물

량은 코로나 이전까지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해외공장 물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현지 완성차 생산물량 증가가 국내 생산-북미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면 냉연 및 전공정인 열연 부문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국내 공장의 축소 및 폐지 등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4-5년에 걸친 착공-완공기간, 투자비용 조달의 어려움, 직접환원제철 생산기술 도입-적용의 시행착오, 현지 철강업계의 반발 등 여러 부정적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일관생산 관점에서 미국 현지에 냉연강판 제조시설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회사가 현대제철 노동조합 압박 및 구조조정 명분을 쌓기 위한 위협용 교섭 무기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다분합니다. ‘양재동 가이드라인’으로 일궈어지는 계열사 성과 분배 차별, 난항을 거듭하며 해를 넘긴 단체교섭, 회사의 일방적인 포항2공장 폐쇄 발표를 둘러싼 노사갈등에 이어 꼬여버린 노사관계에 또 다른 부정적 요인이 더해진 셈입니다. 🇰🇷

